

예수병원 앞 쉼터에 나무 가꾼다

'나눔과 치유의 정원' 개소식 전주시-예수병원과 협약 체결

전주시의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사업이 본격화 된 가운데, 전주 예수병원은 병원 앞에 조성된 쉼터공간에 나무를 가꾸기로 했다.

시는 지난 21일 예수병원 앞 쉼터로 조성된 '나눔과 치유의 정원'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시의회 의장, 권창영 예수병원장을 비롯한 직원들, (사)푸른전주운동본부 정명운 대표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천만그루 정원도시를 전주를 미세먼지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도시, 시원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김승수 전주시장의 민선7기 첫 결재사업으로, 행정과 시민, 기업·민간단체가 모두 함께 단 1평의 땅이라도 있다면 나무를 심어 도시 전체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은 이날 최근 서원로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재탄생한 '나눔과 치유의 정원'의 완공을 기념하는 모과 나무와 예수병원직원 140명이 각각 한 그루씩 기부한 나무들을 직접 정원에 심었다.

또한, 이들 기관과 예수병원은 향후



전주시는 예수병원 앞 쉼터로 조성된 '나눔과 치유의 정원' 개소식 및 관리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곳을 계속 가꾸고 관리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예수병원 앞 '나눔과 치유의 정원'은, 시가 지난 2015년 서원로 개량공사로 생긴 내대지에 총 2억원을 투입, 수목을 식재하고 야간경관을 위한 LED조명 등을 설치해 조성한 공간이다.

권창영 예수병원장은 "오늘 식재행사에서 이후에도 직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쓰레기를 치우는 등 이곳을 가꾸고, 식재된 나무관리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천만그루 정원 도시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

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정원과 나무를 함께 가꾸 도시를 쾌적하게 만들고, 시민들에게 행복을 선사할 공공재로 가꾸어 나가는데 앞장기로 한 예수병원의 모든 임직원에게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김영태 기자

전주시, 적극적인 국제교류·해외홍보 '결실' 맺다

영국 더 가디언 등 해외언론들이 '전주의 문화' 조명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 방문·미 대사관과 문화주간도 추진

전주시는 올 한해 적극적인 국제 교류와 해외홍보를 통해 세계 속의 전주를 알렸다.

시는 해외 자매우호도시와 글로벌 기업, 재외공관, 외교부 등 다양한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활용해 활발한 해외홍보를 추진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시는 영국과 호주, 러시아 등 외신 초청사업을 했고 해외미디어를 활용한 국내홍보 연계에도 성과를 거뒀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유력지인 '더 가디언'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인 전주를 집중 조명했으며, 호주의 여행전문지인 '트레블러'는 지난 동계올림픽 기간에 꼭 가봐야 할 도시로 전주를 꼽기도 했다.

러시아의 최대 미디어사 중 하나인 '폼소볼프라우다'의 편집국장은

직접 전주를 찾아 전주를 미식 도시로 취재, 보도한 바 있다.

또한, 글로벌기업인 영국항공은 지난 9월 한 달간 전주홍보영상과 전주국제영화제 단편영화 5편을 기내에서 상영하고, 기내잡지인 하이라이프를 통해 전주를 소개했다. 영국항공이 특정도시를 홍보하는 프로젝트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알려졌다.

특히, 김승수 전주시장은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주요 국가의 주한대사 40인을 전주로 초청, 첫마중길과 전주한옥마을, 팔복예술공간 등에서 도시재생사례를 홍보했다.

지난 7일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주최한 해외공관행사에서도 미국과 스페인 등 주요국 대사 약 5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를 홍보했다.

지난 8월에는 전 세계 1000여 지방정부가 가입된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의 태대지부와 공동으로 청년포럼도 개최했다.

이와 더불어, 미국대사관과 '미국 문화주간 미국을 경험하다'를 통해 미국의 바베큐 파티와 합창공연, 우쿨렐레공연 등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외에도,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중일 자매도시 친선바둑대회를 개최하고, 일본 가나자와 마라톤 대회 등에는 민간사절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또, 국제한식조리학교와 요리동영상 등을 페이스북에 업로드해 잠재적인 전주방문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도 주력해왔다.

시는 내년에도 참신한 아이디어로 적극적인 해외홍보를 추진하고, △미국 뉴올리언스와 스페인에서는 문화도시 한 곳을 선정하여 우호교류 다변화를 꾀하고, △2016년부터 진행해온 전주세계문화주간은 스페인대사관과 함께 스

페인문화주간으로 올 6월 경에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지방정부연합과는 청년위원회 설치를 논의하고 현재는 유니세프 등과 협력사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외어워드 응모를 통해 전주시의 도시재생 사례 등 우수선진사례를 해외의 도시들과 공유, 전주시가 글로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콘트를 타워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대한민국하면 서울을 떠올렸던 외국인들에게 전주가 알려졌다는 그 리 오래되지 않았으나, 전주의 잠재적 가치는 이제 점차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며, "국제교류와 해외홍보는 장기적으로 관광객유치 등을 통한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전주 시민이라는 시민들의 자긍심함양, 우리시문화홍보, 시민들의 문화향유 등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성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 벌금형 구형

허위사실공포... 검찰, 300만원

허위사실공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인홍(62) 전북 무주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21일 오후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조합장이던 시기에 부실 대출에 의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이 명백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황 군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합장 시절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이를 감추거나 부정하려는 생각이 없었고 단지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구 하나하나에 집착해 처벌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무소속으로 출마한 피고인을 군수로 뽑아준 군민들을 생각해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 군수는 최후변론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전과를 속이기 위해 악의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라 억울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제가) 군수로서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황 군수는 지난 6월 3일 열린 무주군수 공개토론회에서 능력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 받은 사실에 대해 묻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허위로 소명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조합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조합의 대표로서 부득이한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으나 자신의 친구에게 부당 대출을 해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 군수는 또한 이같은 내용을 선거공보 소명란에 적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석훈 기자

검찰, 김승환 교육감 벌금 100만원 구형

토론회서 허위사실 공포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토론회 때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오후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김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교육감으로서 자의적 해석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발언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변호인을 통해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당시 토론회에서 발언한 사실은 있으나 이 같은 발언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교육감은 최후변론에서 "(제가) 검찰 조사에 응할 때 소명하는 방법이 매우 부족했다"면서 "당시 너무 많은

질문이 순간적으로 들어오다 보니 기억에 의존해 발언했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 교육감은 지난 6월 4일 후보자 토론회 과정에서 인사 행정에 관해 묻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인사가 끝날 때마다 설문조사를 한다. 전북도교육청의 인사만족도는 90%를 왔다 갔다 합니다"고 답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 총 5개 항목을 두고 인사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매우 만족'과 '만족'을 합한 평균은 60%대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육감은 검찰조사에서 "인사 담당자들이 인사만족도에 대한 '불만족' 응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불만족'이 3~5% 정도여서 '만족'이 90% 정도인 것으로 봤다"고 진술했다.

/강석훈 기자

전주시,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전주시가 지난 21일 분청 4층 회의실에서 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황인기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강사를 초청,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안전사고 응급처치 방법과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위기상황에서 누구나 대처할 수 있는 실전 위주의 교육을 했다.

황 강사는 "심정지 후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하면 75% 이상의 소생률

을 보이지만, 5분 이상 지체 시 뇌손상, 뇌사발생 등 위험이 발생한다"며, "119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심정지환자에게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재수 전주시 총무과장은 "심정지 환자 응급처치에 있어서는 초기 발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직원들이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500여명 직원들이 교육에 참여했다.

/송효철 기자

지속가능 생태도시 이끌 '문화, 재생과 커뮤니티'

전주시, '이끌림 교육' 실시

전주시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시 산하 기술직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21일 팔복예술공장에서 시 산하 토목, 건축, 지적, 녹지 등 시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태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인 '생태도시 사람들 이끌림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위원인 이영범 경기대 교수가 '문화, 재생과 커뮤니티'를 주제로 문화재생의 의의와 역할 등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이 교수는 "진정한 문화 도시재생의 의의와 가치는 장소와 시간, 가치, 관계의 재생"이라며 "패 카세트테이프 공장에서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한 전주 팔복예술공처럼 다양한 시민들의 문화향유공간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시는 지난 21일 팔복예술공장에서 '생태도시 사람들 이끌림 교육'을 실시했다.

시 사람들 이끌림 교육 참여를 유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앞선 사례들과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시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높여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최후결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앞으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전문가들의 강의 및 현장견학 등을 통하여 공무원들의 내실 있는 자기계발을 돕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마트 물품 절도 피의자 검거

마트에서 도난방지용 락을 떼서 절취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1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모씨(59)는 지난 20일 오전 11시경 익산시 B마트에서 도난방지용 락을 제거해 절취하는 방법으로 시가 17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전 11시 20분경 피의자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

'공원에서 감시 소홀한 틈' 휴대폰 훔친 피의자 붙잡혀

공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휴대폰을 훔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1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피의자 A모씨(39)는 8월 31일 오후 1시 53분경 군산시 B로 공원에서 피의자 C모씨(62)가 운동을 하는 사이 기구 위에 올려 둔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훔쳤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6시경 영상 자료를 분석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

완산구 물왕벌지구 지적재조사 현황 측량 완료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이철수)는 최근 농도송동 일원 물왕벌지구 105필지, 1만5,608㎡에 대한 지적재조사 현황 측량을 완료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해온 종이지도를 위성측량(GPS)등 최신 측량기술 방식과 전 세계에 따라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도록 토지경계를 바로 잡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완산구는 그간 실시계획수립 및 주민 동의를 얻어 전주시에 지구지정 신청을 했으며 측량조사대행자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주지사를 선정해 측량을 진행해 왔다.

현황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이후 경계 조정과정을 거쳐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수령·지급하는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노한경 민원봉사실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청산할 것"이라며, "사업이 완료되면 불필요한 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정형화 등으로 이용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 기부자 명단

<고창>
공음면 다옥마을 110000
공음면 중여마을 160000
공음면 비석마을 195000

<부안>
하서면 장원마을 145000
백산면 임방마을 260000
(12월 24일자)